

“더위에도 북적” 광양 ‘중마교역소 토요일피크닉’ 활기

28일 클래식, 타악팀 공연
‘오감 만족’ 구성으로 호응
7월 둘째·셋째 토요일까지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마교역소 토요일피크닉’이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오는 28일 마동저수지생태공원 내 중마교역소 잔디공원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토요일피크닉을 개최하고 광양시민의 주말을 특별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중마교역소는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소속 5개 기업이 무상 기증한 산업용 컨테이너를 ‘아트 컨테이너’로 재탄생시켜 조성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2023년 8월9일 개관했으며 현재는 특색 있는 3개 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무상 전시와 시민 대관에 이어, 올해는 ‘토요일피크닉’, ‘시민클럽’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양시의 문화도시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요일피크닉은 마동생태공원 내 중마교역소를 지역 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피크닉 같은 여유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에는 전래놀이 체험, 클래식 및 퓨전국악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청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도심 속에서 여유로운 문화 소풍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토요일피크닉 역시 한층 다채로운 구성으로 시민을 맞이할 계획이다.

먼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감성 공연팀 ‘그대-LOW’와 장구와 팽과 리로 흥을 더하는 타악 퍼포먼스 팀 ‘두들소리’가 무대에 올라 정적인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5월 광양시 마동저수지생태공원 내 중마교역소 잔디공원에서 퓨전국악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보인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도 마련돼 도심 속 여유로운 주말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토요일피크닉’은 오는 7월 28일까지 매월 둘째·셋째 토요일에 중마교역소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양문화도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후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

품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문화도시센터(061-761-070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2, 2층)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훈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마동저수지생태공원은 일상 속 쉽고 활력을 제공하는 최적의 장소로, 가벼운 차림과 간단한 먹거리만 챙기면 누구나 완벽한 소풍을 즐길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름밤 맥주와 함께’ 구례군, 제7회 오맥축제 개최

전라남도 구례군이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구례읍 5일시장 일원에서 ‘2025 구례 5일시장 제7회 오맥축제’를 개최한다.

25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맥축제는 구례읍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시작돼 7회째를 맞았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3·8일 장이 열리는 토요일에 운영된다.

이번 제7회 오맥축제는 ‘500cc 맥주 1잔에 500원, 오후 5시에 하는 행사’라는 키워드로, 성인 인증 후 맥주 교환권(4잔 2000원)을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례 5일시장 청년집포 및 상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 메뉴를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버스킹 무대도 함께 마련돼 구례의 여름밤을 흥겹게 수놓을 예정이다.

구례 5일시장 상인회장은 “오맥축제는 시장 상인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에 더 많은 생기와 활력이 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여수시, 참전유공자 등 200여명 참석

전라남도 여수시는 25일 오전 여수문화홀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국가에 공헌·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안보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으며 6·25전쟁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및 격려사, 특별공연,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순철 6·25참전유공자회 여수시지회장은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며 “전쟁의 고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평화를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는 25일 여수문화홀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여수시 제공**

고흥군, 스마트팜 영농기반 스마트 원예단지 입주자 모집

전라남도 고흥군이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스마트 원예단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덕면 가야리 3715번지 일원에 약 11ha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 원예단지는 부지 정리, 도로, 전기, 저수조 등 기반시설을 갖춘 단지로, 총 20개 구획(각 0.3~0.5ha)으로 구성된다.

현재 오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한 뒤 7월1일부터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조성된 농지를 임차해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고흥 주민 또는 임대차 계약 전까지 고흥군으로 전입이 가능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흥군 농업정책과(061-830-5384)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친환경 유기농업 ‘풍년새우’ 불러왔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이 도입되면서 청정지역에서만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흥면 정암마을의 김재기 농가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면 북교리 일원 친환경농업단지에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 수천마리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긴꼬리투구새우는 3억년 전 고생대 시기 화석에서도 발견된 화석생물로, 산업화 이후 지나친 농약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후 사라졌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이 도입되면서 청정지역에서만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흥면 정암마을의 김재기 농가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풍년새우는 몸통이 투명하고 까만 눈과 빨간 긴꼬리가 특징이다. 긴꼬리투구새우와 함께 수십개의 다리와 긴꼬리로 논바닥에서 먹이를 먹고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초 역할을 한다.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민감해 토양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친환경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유기농법이 시행되면서 살아 있는 흙과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태 기반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고동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의 발견은 건강한 생태계의 반증”이라며 “이번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지속가능한 장흥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편백 치유의 숲’ 경유 버스 운행 연장

8월 말까지... 주말·공휴일 1회

전라남도 고흥군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범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운행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군민

과 관광객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방문할 경우 입구 도로변에서 하차한 뒤 약 1.8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해 노약자나 영유아 동반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고흥군은 운수회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편백숲 내부까지 진입하는 노선으로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본

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당초 6월 말까지였던 운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운행 노선은 기존 고흥터미널-남열리 구간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정차를 추가한 형태로,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숲이자 고흥의 대표 관광지에 대중교통이 투입됨으로써 자가용이 없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마 대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보성군,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전라남도 보성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구호물자 확보, 주민 대피 훈련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저수지 102개소, 소화전 39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01개소 등 주요 재난 취약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 건설 현장 53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담당제를 운영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습침수지역의 빗물받이와 우수맨홀에 대해서는 사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배수시설을 사전 정비해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섰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사전 예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경미한 위험 요소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피해 발생 시 119 등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양종우 기자